



|   |                 |  |   |
|---|-----------------|--|---|
|  | <h1>보도해명자료</h1> |  |  |
|   | <b>배포일시</b>     | <b>2019. 4. 29.(월)</b><br><b>총 1매(본문1)</b> |   |
| <b>담당 부서</b>  | 신공항기획과          | <b>담당자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장 정용식, 사무관 전 진, 주무관 김경현<br>☎ (044) 201-4138, 413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b>보도일시</b>   |                 | <b>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</b>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
## 제주 제2공항 공론조사는 합의된 바 없습니다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더불어민주당,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공론화에 대해 합의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  - 지난 2.26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당정협의회 합의 사항은 “제주도가 합리적,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 의견 수렴·제출할 경우, 정책에 존중·반영한다”는 것입니다.
-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연장 운영 중인 “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”와 「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」이 6월까지 완료되면, 그간 제기된 사항 등에 대한 우려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세계일보, 4.29.) >

- “제주 제2공항 ‘공론조사’ 새 쟁점 부상”
  - 더불어민주당, 국토부,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가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재가동과 함께 공론화에 합의했음
  -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등은 제주지사에게 도민 공론조사 요구, 제주지사는 공론조사에 부정적 입장임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 
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전 진사무관(☎ 044-201-413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